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4월 22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6장 6-10절

설교제목 : “아사셀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하여 레위가 23장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날, 즉 7월 10일에 지킵니다. 7월은 종교력입니다. 그 날은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레23:27-28) 속죄일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아담이 회개한 날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셋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날이라고 간주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승일뿐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미드라쉬적 해석은 금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금식과 함께 모든 오락과 유흥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23:32 “이는 너희가 **월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흐렛날은 한 달이 시작에서 아홉째가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지는 시간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7월 10일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날을 ‘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중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가장 거룩한 날로 여깁니다. 왜 가장 거룩한 날로 여깁니까?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 중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대속죄일은 지난 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기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복이 아닌 거룩한 세마포를 입습니다.(레16:4) 흰 세마포는 완전한 순결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세마포를 입기 전에 대제사장은 몸을 씻는 의식을 가진 뒤에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드러지는 순서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입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 선택된 두 마리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향아리에 손을 넣어서 운명적인 제비뽑기를 합니다. 향아리 안에는 각각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여진 두 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합니다.(레16:7-8)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각의 염소가 정해지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도살하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레16:9) 한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레16:10) 그런데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손을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알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레16:21-22) 그러면 아사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광야의 어떤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 죽도록 한 장소는 ‘하르 몬타르’입니다. ‘하르 몬타르’는 유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아사셀 염소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 혹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속죄 염소 자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주로 영어번역 성경이 이 견해를 취합니다. 네 번째로 완전제거를 뜻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네 번째 견해를 취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아사셀에게 보내진다는 것은 염소에게 전가된 백성의 죄가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시103: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편의 표현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가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비유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고 표현했

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희생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마리의 희생염소가 체비뿔기를 한 이후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도살 되어 성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집니다. 반면 아사셀 염소는 성전의 동쪽의 유대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두 마리 염소가 각각 서쪽과 동쪽을 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과가 멀리 옮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은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선택된 두 마리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속죄일에 속죄를 위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대속제물로 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대속죄일 제사와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히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라”**. 그리고 백성들의 죄는 아사셀 염소 위에서 자백됩니다. 따라서 아사셀의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히13:11-12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롭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요1:29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 ‘아사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선포한 날이 대속죄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염소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당시에는 희생 제물로 바치던 황소, 숫양, 염소 등을 총칭해서 어린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어린양이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구약의 아사셀의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온전하게 사하시기 위하여 아사셀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아사셀의 희생제물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 앞에 외롭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설명해 봅시다.(레23:27-28, 32)
- 2) 백성들을 위해 가져온 두 마리 염소 중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봅시다.(레16:9-10/21-22)
- 3) 시편 기자가 시103:12 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선포하였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계3:20)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